

그림으로 보는 우리나라 도시의 얼굴

《한국의 도시》 펴낸 박병주 교수



“사람마다 얼굴과 개성이 다르듯 도시도 경관이나 특징적인 모습이 각각 다르지요. 도시가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추하게 됩니다. 도시의 ‘미·추’를 일깨우고자 그림을 통해 도시얼굴을 담아보았습니다.”

박병주 교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일의 항구도시인 부산은 환태평양 연안 도시 가운데 항만 조건이 가장 탁월하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박병주(朴炳柱) 홍익대 명예 교수(71)가 최근 펴낸 《한국의 도시》(열화당)에는 이런 전국 각 도시의 특징들이 담백한 수채화로 들어 있다.

도시마다 개성 다른 얼굴

“사람마다 얼굴과 개성이 다르듯 도시도 경관이나 특징적인 모습이 각각 다르지요. 각 도시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성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경관을 파괴할 때 도시의 모습은 추하게 됩니다. 도시의 ‘미·추’를 일깨우고자 그림으로 도시얼굴을 담아본 것입니다.”

박병주 교수는 5년여 동안 국내 53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오늘날 우리 도시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와 매력을 부각시키는 요소는 무엇인지 두루 살펴 325점의 스케치로 모았다. 그린 시점에서 한 도시의 모습은 그만큼의 역사

와 기능을 말해준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느낄 수 있다. 주변경관과 불균형하게 높은 빌딩, 잘못된 하천복개가 얼마나 도시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지도 보여준다.

얼핏 보면 단순한 풍경화이지만 이 책의 스케치에는 전문가만이 그릴 수 있는 정밀함이 들어 있다. 방파제, 부두, 철탑의 구조 하나하나조차 정확한 근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구조의 정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펜화를 택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자연경관이나 문경새재, 낙동강변의 경천대는 소박한 자연의 멋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수묵화로 표현했다.

“그 도시의 매력을 한껏 풍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날씨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그러자니 한 곳에 며칠씩 머물기는 예상과, 근경과 원경이 어우러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오해도 많이 샅습니다. 원주 시가지는 상시대 여학생 기숙사에서 그린 것인데 마침 방학 때라 겨우 스케치할 수 있었죠.”

마음의 부드러움 일깨우는 도시여야

박병주 교수는 공원녹지정책에 관심이 많다.

“건물은 수명이 있어 언젠가는 노후하여 허물어지겠지만 자연은 영구합니다. 도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호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녹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부드러움, 마음의 아름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도시 속에 살지만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자기 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병주 교수는 극에 달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오염된 하천을 복개공사로 덮으면 썩은 물은 밑으로 흘러 더 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하천가를 정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도시계획이라는 것.

결국 이 책도 “자전거도시를 만들자, 도로 대신 보도를 넓히자, 공원녹지를 만들자”는 박병주 교수의 ‘푸른 도시계획관’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바람인 셈이다.

술한 도시계획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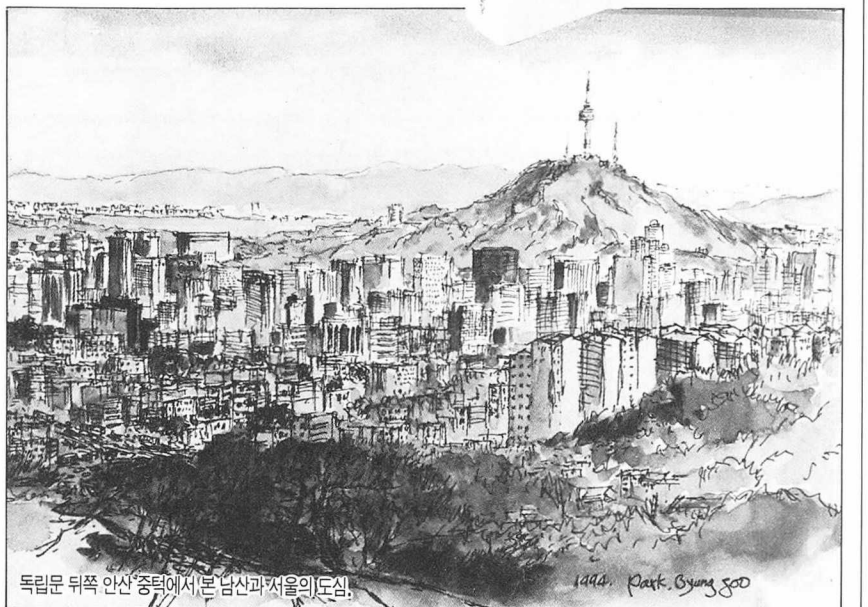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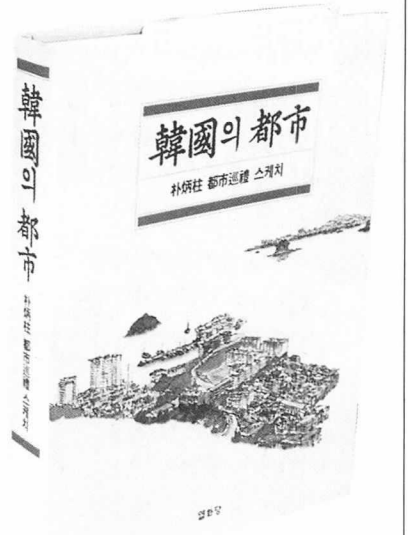
부산에서 출생한 박병주 교수는 조선말엽 정부의 측량기사였던 선친의 영향을 받아 측량전문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그리기를 몹시 좋아해 부산의 해변 풍경을 곧잘 그리곤 했다. 홍익대에 도시계획과를 설립하고 공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며 35년 동안 강단에 서면서 20년 동

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수유리 주택단지계획(63)에서부터 박교수가 설립한 도시계획은 술하다.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남서울대공원 기본계획, 반월신도시 기본구조계획, 과천 도시 기본구조계획 등 주요 도시계획에 박교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 경주 도시계획(70) 때는 첨성대 부근의 한옥건축을 규제해 그곳 주민들에게 화형식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 6년 가까운 긴 작업 끝에 ‘도시스케치’를 내놓은 박교수는 수십년 뒤에도 비슷한 작업이 나와 한국도시경관 연구의 좋은 비교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지원 기자



독립문 뒤쪽 안산 중턱에서 본 남산과 서울의 도심.

1994 Park Byung-ju